

# AMERICAN RESCUE PLAN

**American Rescue Plan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 커뮤니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**

COVID-19 범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(AAPI) 커뮤니티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AAPI 카테고리에 소속된 여러 커뮤니티는 이 연속적인 위기를 각자 다르게 경험하였으나, 공통점은 모든 AAPI 커뮤니티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. 또 하와이 등의 특정 지역 내 AAPI 커뮤니티는 더 높은 COVID-19 관련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로 AAPI는 해당 주 COVID-19 관련 사망률의 거의 9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하와이 네이티브 및 태평양 제도민이 범유행으로 입은 타격은 다른 이들이 입은 타격보다 현저하게 큼니다.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경제적 위기와 공중 보건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국립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

American Rescue Plan은 범유행 상황을 바꾸고, 큰 타격을 입은 AAPI 가정과 사업에 즉시 도움을 전달하며, 경제적 회복을 향한 다리를 놓고,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빈곤률을 거의 22%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다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.

**전국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설립하고, COVID-19를 억제하며, 안전하게 학교를 재오픈할 수 있음.** 미국 내 근로자는 직장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을 실행하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범유행 상황을 다루려 합니다.

- 백신을 최대한 빨리 배포하면서 COVID-19 결과의 인종간 차이를 다루는 동시에 COVID-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품, 비상 대응, 검사 및 공중 보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약 1,600억 달러를 투자함. 이런 긴급 조치는 바이러스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맞설 수 있게 돕고, 문화적으로 적절한 커뮤니티 기반 케어를 제공할 것입니다.
- 여러 학교가 배우는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도울 수 있게, 그리고 취임 후 100일 안에 K-8 학교의 대부분이 안전하게 재오픈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1,300억 달러를 제공함. 이러한 투자는 여러 주와 지구가 유색인종 학생, 영어 학습자 및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COVID-19의 영향을 현저하게 더 많이 받은 학생들의 학습 손실과 사회 정서적 필요를 다룰 수 있도록 주 및 전국 수준으로 제공되는 조달 할당금을 포함합니다.

**위기의 가장 힘든 부분을 견뎌야 하는 미국 내 가정에 즉시 도움을 전달함.** American Rescue Plan은 근로자 가정의 경제 회복을 향한 다리를 놓는 데 약 1조 달러를 할당합니다. 이에 따라 최저 소득을 벌며 어린 자녀 한 명을 둔 편부모는 시간당 \$7.25에서 약 \$11와 같은 소득 증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플랜은...

- 근로자 가정에 인당 \$1,400의 지원금을 제공해 이 지원금과 12월 지불액을 통틀어 \$2,0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함. 85%가 넘는 가정이 지원금을 받게 되며, 이 법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CARES 법이나 12월 법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큼. 그리고 최초로 성인 부양 가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4인의 저소득층 가정이나 중산층 가정은 추가 \$5,600를 받게 됩니다.
- 현 실업 보험 혜택과 신청 요건을 9월 6일로 연장하고(약 일주일 내에 천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 혜택을 잃기 시작하지 않게 도움), 주당 \$300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며, 사람들이 작년 받은 실업 보험에 예기치 못한 세금이 청구되지 않게 도움.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범유행 중에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였기에 이는 커뮤니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

- 밀린 렌트 비용을 낼 수 있는 긴급 지원을 제공해 살 곳을 잃지 않게 도움. 이 법안은 또 주택 소유자 지원금(Homeowners Assistance Fund)을 통해 어려운 상황의 주택 소유자들이 밀린 모기지과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돕습니다. 또 노숙 상태에서 벗어났거나 노숙의 위험을 경험했던 가정과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-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(SNAP)의 가치를 높임. American Rescue Plan은 2021년 9월까지 SNAP 혜택을 15% 높일 예정입니다. 이 법안은 또 레스토랑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가정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레스토랑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. 또 푸에르토리코 등의 미국령에 추가 영양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여성과 영유아가 식량 불안정을 다루는 데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.
- 자녀 세액 공제금을 자녀당 \$2,000에서 \$3,000으로 올리고(6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한명당 \$3,600), 17세 자녀가 해당 연도에 아동으로 분류되어 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. 따라서 어린 자녀가 두 명인 일반 가정은 육아 관련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추가 \$3,200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이는 6천6백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.
- 1,700만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금을 최대 \$1,000까지 올림. 캐시, 식품 준비 담당 및 서버, 그리고 가정 의료도우미 등 위기의 최전방에서 지역사회를 도와 온 이들이 해당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.
- 육아 지원 확장, 타격이 큰 육아 제공자의 비용 지원 및 육아 비용 커버를 위한 추가 세금 공제 크레딧 제공.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제공된 육아 지원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.
- 육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가정에 추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함.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출한 비용의 최대 반을 환불 가능한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아 자녀당 최대 \$4,000, 또는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인당 \$8,000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여러 주가 다음과 같이 추가 현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추가 십억 달러 제공. 범유행 위기로 보조금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불우이웃을 위한 임시 보조금(TANF)을 제공함.
- 의료 보험 마켓플레이스에 가입된 수백만 명의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이 의료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음. 가계 소득이 \$90,000인 4인 가정은 월 \$200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이로서 백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플랜은 또 지속적인 의료 보험(COBRA) 비용을 보조합니다.

**COVID-19의 영향으로 고생하는 커뮤니티들에 도움을 제공함.** 수백만 명의 미국인 근로자가 다른 커뮤니티보다 현저하게 큰 타격을 입은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이 플랜은 이러한 커뮤니티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서는 다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.

-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수 있는 조건 및 청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보조금, 대출금 및 투자금을 제공함. 이는 유색 인종 소유 사업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중심가 내 소기업에 성장 자본을 제공하는 소기업 기회 기금(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)을 포함합니다.
- 주, 지역, 영토 및 부족 정부가 효과적으로 백신을 배포하고, 검사 규모를 확장하며, 학교를 재오픈하고, 기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전방 공공 작업자의 직업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3,60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함. 주 및 지역 정부는 범유행 시작 이래로 백만 명의 교육자 정리 해고를 포함하여 약 14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. 이는 경제 대공황 사태 당시의 750,000개 일자리 감소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.
- 큰 타격을 입은 대중교통 기관이 정리 해고와 서비스 감소를 피할 수 있게 도움. 정리 해고와 서비스 감소는 대중교통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높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.